

여야 '쌍특검법' 충돌 예고...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28일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처리 자신 여당 "총선 교란용 악법" 이관섭 "흠집내기 의도"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가 없다"며 "175~180석에서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쌍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론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

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공격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윤 아바타', '한동훈=김건희 방탄' 공세를 가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아 대폭적인 현역의원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이 당내 반란표로 인해 통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술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들이 범

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술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을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일간담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28일날 법안

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특조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조사 보다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방점을 뒀다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5일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앞에 '제10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뉴스

국힘,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올해 안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100일 남짓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를 빠르게 꾸려 총선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출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비대위원 인선 과정까지 고려한 시점이다.

비대위원은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인선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789(1970·80·90년대생) 세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되, 그 이전 세대라도 새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면 중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국가가 좋은 선물 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

고,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응원한다"고 하자,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되기 직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돌았다.

"한동훈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견제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처럼 1일 1실원에 플러스 1일 1오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한동훈식 야구는 삼진아웃으로 가는 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데 대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동훈식 야구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 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성탄인사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십자가탑광장에서 열린 성탄전야제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성탄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

이준석 "영·호남 지지받는 신당 해보고 싶다"

본보 인터뷰서 밝혀 "이낙연 만나고 싶다" 빅텐트 가능성 시사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사진) 전 대표가 제 3지대 신당에 대해 "영·호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2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과거에 국민의당을 안철수 대표가 창당했을 때 한계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쪽 날개로만 날려다 실패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신당 창당 목표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새해 신당 창당을 밝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 신당의 길을 걷는다면, 당연히 찾아뵙고 고민을 나



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어른이고 당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 고민의 시간 동안에는 말을 보태지 않는게 예의"라며 신당 창당과 관련한 적당한 시기에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딱 한 번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가장 핵심적인 연대의 대상으로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양향자 의원에 대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이다. 꽤 빈번한 소통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상민 의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사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다"면서 신당 창당, 나아가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세력임을 밝혔다.

그는 "정치할 날이 많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석 수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이 길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의향이 있다"며 신당 창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빅텐트'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만약에 선거 제도가 병립형(비례대표제)으로 간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 모여'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쌍특검법 처리 등 여러 변수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친이준석계와 탈당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신당 창당 및 재결집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세균·김부겸 회동... "당 분열 막아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양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하고, 당내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고, 이 전 대표도 만나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데도 동의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총리는 이 전 대표의 당 비판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측에서 요구하는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갈등'도 언급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명계에서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김선욱 기자